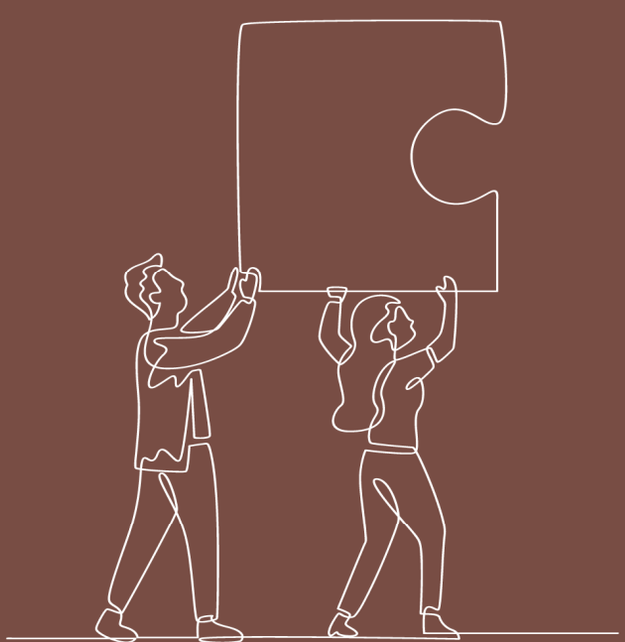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승선 상승모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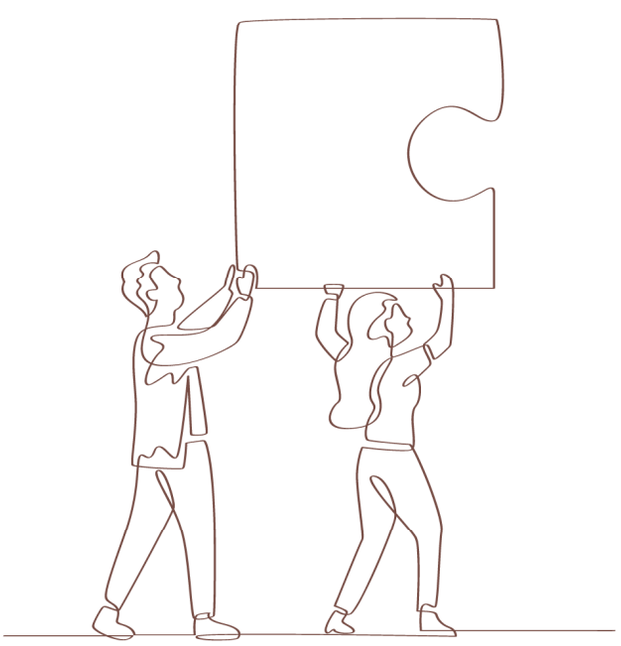
3-1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3-1

3-1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3 제1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22~27] 이중경, '어부별곡' (수특 연계) / 이용, '북정가' (비연계) / 김동석, '나의 단장' (비연계)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수능 국어라는 시험은 실력과 실력 발휘의 격차가 가장 큰 시험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실력이 있느냐의 문제와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가 개연적이기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지요. 결국 실력 발휘를 잘하려면 하나의 시험을 운영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적게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가느냐, 끌려 다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시험 운영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이승모 국어를 검색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설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게 수필 복합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수필 복합은 다른 영역에 비해 아무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절대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이건 당연하니까요.) 시험장에서 수필 복합을 풀게 되면 본인이 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리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른 영역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겠지만, 독서의 가/나 지문이나 수필 복합은 아무래도 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부터 뭔가 말리기 시작하거나, 이 세트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다음 세트에서 망가지는 일이 많습니다. 늘어진 시간을 다음 세트에서 복구하고 싶다보니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수필 복합이 다른 세트들에 비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여기서 한 두 문제에서 절게 되면, 이게 다른 세트에 비해 더 크게 늘어지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 수능에서는 수필 복합과 가/나 지문만 잘 넘어가도 시험 운영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 그러니까 기출을 풀든 사설을 풀든 수필 복합에 대한 피지컬과 경험치를 키워두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임팩트 원 지문을 수필 복합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순수하게 제가 이 세트를 어떻게 풀고 넘어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해설과 얻어갈 것들은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실전에서 수필 복합은 그냥 (가)~(다)까지 한꺼번에 읽고 풉니다만,(작품을 여러분들보다는 아는 게 많으니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처럼 풀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지문 접근 방식은 같은 영역끼리 읽고, 해당 문제 풀고, 수필 읽고 나머지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가)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어차피 (가), (나) 중 하나는 연계일 거고, 기본적으로 시험은 시선 이동이 많으면 실수가 잦아지는 법입니다. 저는 이번 세트를 (가), (나) 읽고 해결, (다) 읽고 해결으로 풀었습니다.

(가) 어부별곡은 연계입니다. 저는 안다는 얘깁니다. 가볍게 털고 바로 (나) 지문으로 갔습니다. 이용의 북정가 역시 아는 작품이나, 차분하게 읽고 끝냈습니다.(읽는 방법이나 얻어갈 것은 '나이공'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보기〉부터 읽고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을텐데,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보통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보기〉부터 읽고 들어가면 유리할 때가 있고, 고전은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고 말은 하는데, 이것도 정해두지 마시고 시험장 상황에 따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세트에서는 24번 〈보기〉와 27번 〈보기〉가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 보기를 읽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건 시험장에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단 〈보기〉를 읽고 들어갈 것이면 제대로 읽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기〉 문제 풀 때, 〈보기〉를 다시 읽고 선지를 보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저는 (가), (나) 읽고 22번부터 26번까지 털었고요. 25번은 ㄱ만 정리했습니다.(사실 ㄱ만 정리해도 답일 것 같은 것이 저를 꼬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를 읽고 27번을 해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다고 느낀 문제는, 최근 경향에 부합하는 23번,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24번, 그리고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27번이었습니다.

22.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선지 쳐내는 방식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건 방식이 아니라, 일단 크게크게 치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푸는 데에 빨리 풀었던 팁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① (가)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 물론 색채어의 대비를 쳐도 됩니다. 색채어의 대비가 없어요. 다만 '대비'는 돌아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저는 대상의 역동성을 바로 그었습니다. 왜? 뭘 읽었을 때 다이내믹하게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소리라고 바로 친 겁니다. 문학 개념어는 결국 일상의 언어입니다. 역동적 = 다이내믹 끝.

②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나타내고 있다.

- 맥락으로 쳐 버리면 됩니다. 인생에 대한 무상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작품입니다.

③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애상적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 사실 실전에서는 수필이라 그냥 일단 넘겼습니다. 근데 바로 쳐 버릴 수도 있는 게, 수필의 제목이 나의 '단장'이죠. '단장'은 지팡이고요. 자연물과는 관련이 없을 듯하고(중심 소재가 지팡이니까) 읽어보시면 애상적이지도 않아요. 다만, 실전에서는 일단 지금은 (가), (나) 읽고 푸는 중이라 그냥 넘겼습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답이죠. 일단 머리에 넣읍시다. 고전시가 3대 표현법. 설의, 영탄, 대구. 오해하지 마세요. 얘네는 무조건 있다! 이게 아닙니다. 다만, 연시조나 가사에서 설의나 영탄, 대구가 없는 작품이 드물어요. 그래서 한가지 팁을 드리면, 고전시가 표현상 특징에서는 설의나 영탄, 대구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부터 먼저 따지셔도 괜찮습니다. 단, 무조건 있다는 건 아니니, 따질 땐 정확히 따지시길.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에서 '영탄'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며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맥락으로 치세요. 관조도 아니고,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더더욱 아니고요.

23.

세부적인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고전시가는 기본적으로 해석의 정확성 판단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입니다. 혹시 본인이 23번 문제가 걸렸거나, 헷갈렸다면 연계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만 연계와 무관하게 피지컬이 있다면, 선지 한 두 개쯤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답을 찍었겠지요. 세밀하게 따져야 하는 선지 세 개만 보겠습니다.(나중에 좀 친해지면, 이건 죽어도 고르면 안 돼!! 라는 워딩을 쓰겠지만, 오늘은 처음이니.^^)

② 〈제2수〉의 초장에 나타난 화자의 후회는 종장에서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 이 선지는 중요합니다. 2수의 초장 '처음에 못 생각하여 시서를 일삼았도다.' 이것이 '후회'인지는 따질 수 있어야해요. '일삼다'라는 워딩으로 이해하시든, 중장의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랐도다.'까지 보시든, 시서를 일삼았던 과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초장과 중장의 구조가 같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같다는 뜻이죠. 즉 화자의 후회는 맞을 겁니다. 다만 종장에서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지는 않죠. 선지 뒷부분이 쉽지만 앞부분의 '후회'가 판단이 선명하게 되는지를 보시고, 본인이 실전에서 이게 와닿지 않았다면 이 김에 연계 공부를 정확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

③ 〈제2수〉의 중장에 제시된 화자의 판단은 ~~초장에서 자신이 추구하던 태도를 옹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사실상 2번 선지와 연결된 맥락입니다. 2수의 초장과 중장은 모두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는 맥락이죠. 과거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제4수〉의 중장에 제시된 문제 상황은 종장에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 해석의 정확성 판단. 결국 정확하게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대충 문지르면 약간 엥? 할 수 있거든요.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4수의 중장의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는고'를 보면, 화자의 현실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태평시세가 멀었다는 거죠. 이후, 종장에서는 '필부의 위국중심을 내어 뵐 데 없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태평시세가 아직 멀었기에 나의 충심을 보일 수 없음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23번 문제에서 답은 골랐어도 2번, 3번, 4번 선지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었다면 연계를 확실히 공부합시다.

24.

학생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맨날 하는 말입니다. 뭉개면 뭉개진다고. 적당히 문지르면 답 안 보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통해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됩니다. 고전시가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자의 처지가 명확하게 들어오면 작품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선지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24 수능 '화암구곡'에서도 결국 〈보기〉의 '출사하지 못한 선비'라는 말이 선지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26학년도 9월 '화전가'에서도 〈보기〉에서 사대부가의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한시적 만족감을 추구하는지, 지속적 만족감을 추구하는지가 달라집니다.(당시 5번 선지였습니다.) 하나는 건집시다. 화자의 처지가 〈보기〉에 제시되면 무조건 챙긴다! 헷갈릴 만한 선지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 보기 |

인간에게 새롭고 낯선 경험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가)에서 혈육의 죽음을 경험한 화자**(화자의 처지)**는 세계를 공허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화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머물며 내면의 평화를 얻으려 한다**(맥락)**. 한편 (나)에서 변방에 부임한 화자**(화자의 처지)**는 광활한 공간을 바라보며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이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충족된 화자는 혈육을 떠올리며 고향으로의 회귀를 소망하게 된다**(맥락)**.

④ (가)에서 '어채'를 보며 '마음 둘 곳'을 못 찾는 것은 혈육의 부재에 따른 화자의 상실감을, (나)에서 '고향과 떨어진 마음'이 '삼천리를 놀라게' 한다는 것은 혈육에 대해 그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가)는 당연한 소리니까 바로 판단이 되실 거고, (나)가 문제입니다. 이게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도(卵島)에 알을 둔 제비 때때로 돌아오고
오갈암에 앉은 백구(白鷗) 흥이 다함에 날아가니
먼 길 나선 길손 고향과 떨어진 마음 삼천리를 놀라게 하도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혈육에 대한 그리움까지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제비도 돌아오고, 백구도 흥이 다해서 날아가고, 먼 길 나선 길손(화자) 고향과 떨어진 마음이 삼천리를 놀라게 할 정도로 크다 정도이니까, 이것이 혈육에 대한 그리움? 이럴 수는 있어요.

자식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은 밤낮 문간에 기대 바라보고
난초 심은 섬돌에서 서너 줄기 눈물 흘리며 새벽 해질녘으로 기다리니
아이야 말안장 올리거라 돌아가 위로하리라

다만, 이어지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고향과 떨어진 마음 =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렇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4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작품의 맥락을 고려한 상태로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판단이 애매해지면 앞뒤 맥락을 더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⑤ (가)에서 '태평시세'를 언급한 것은 현재의 삶에 몰입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에서 '말안장'을 올리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충족된 후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이게 이제 답이 안 보이면 '사고'입니다. 뭉개면 뭉개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푼 걸 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 틀린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겠다. 단 대강 뭉개서 (가)가 틀린 건데 (나)로 그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아니길 바랍니다만...) 선지의 (나) 부분은 결국 이 작품을 관통하는 선지입니다. '말안장'을 올리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충족된 후, 어머니를 떠올리며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거죠. 오히려 (가)를 잘 보셔야 해요. 그냥 그렇겠지? 하고 뭉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륜을 내 알더냐 제세(濟世)할 이 없을러냐
태평시세(太平時世)는 얼마나 멀었는고
필부의 위국충심(爲國忠心)을 내어 뵐 데 없어라

태평시세가 멀었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 나라 걱정하는 겁니다. 자연에서의 삶에 몰입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서도 속세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돌아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따지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맞겠지? 하고 넘겨버리면 이제 답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헷갈리고 시간 늘어지죠. 뭉개면 뭉개집니다. 돌아가서 정확하게 확인합시다.

25.

이거 솔직히 그냥 ㉠으로 먼저 쳐버렸어요. 1번 선지는 심리적 갈등이 어딨음? 하고 소거. 2번 선지는 ㉠과 달리 바로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보니까 ㉠이 너무 맞아서 바로 ㉡을 발췌로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번 찍고 그냥 밑에 안봤습니다. 이게 실전이죠. 뭐 궁금하시면 4번 선지도 ㉠으로 지워져요. 동화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고요. 5번 선지는 ㉡ 따지셔야 되는데, 그냥 아닙니다.

26.

이것 역시 고전시가 피지컬입니다.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죠. 일일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는 긴 시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화자가 지향했던 삶의 자세를 강조한다.

- 네. 진짜 백 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상징하는 표현이 맞고, 방탕하려 세간에 휘젓고 다니는 삶을 지향했었으니까 적절합니다.

② ⓑ는 과거의 행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화자가 지니게 된 포부를 드러낸다.

③ ⓒ는 화자가 그동안 해 왔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이 사라진 데 따른 화자의 심경~~을 강조한다.

> 산수(山水)에 닿은 눈이 변방까지 열었단 말인가
> 도도한 높은 흥이 ⓑ 천 리 뜻을 자아내니
> 장영*을 청하리라 ⓒ 문관 붓을 던졌도다

- 2번 선지와 3번 선지는 정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평가원 문학 선지들을 보면, 이거다!라는 느낌의 선지가 답이 되기도 하지만(3번 선지), 직관적으로 바로 와닿지 않는 선지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2번 선지) 2번 선지부터 따져보면, 과거로부터 있어왔던 도도한 높은 흥이 천 리 뜻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변방 무관으로 가는데 과거의 높았던 흥이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천 리 변방으로 가고자하는 뜻을 자아냈다는 거니까, 화자가 지니게 된 포부(=뜻)이 맞겠습니다. 이 정도의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딱 떨어질 거고, 아니면 실전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3번 선지가 너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문관을 그만두고 무관으로 전직한다고 해서 사회적 제약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변방으로 간 무관이 사회적 제약이 사라지면 나라에 변고가 날 것 같은데...

④ ⓓ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관념적 지식에 머물던 화자의 지난날을 보여 준다.

- 사실관계 정확히 따지시면 됩니다. 돌아가서 읽어보면, 그동안 하늘땅이 같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었나 봅니다.(관념적, 추상적) 그런데 막상 보니 하늘이 넓다네요.

⑤ ⓔ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으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일단 고전시가에서 자연물이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지 않은 대상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선지 앞부분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흥이 다한 백구 = 화자 이겁니다. 화자 입장에서는 볼 거 다 봄. 그러니까 이제 슬슬 돌아가고 싶어짐. 이겁니다. 군대 갔다 오셨나요? 아니시겠지요. 조금 다르지만 말년 병장의 마음입니다. 집에 언제 가지? 가고 싶다. 엄마... 뭐 이런... 물론 작품처럼 군대에서 흥이 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흥이 다해 돌아가는 백구가 날아가는 모습에 본인을 투영하여,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돌아가 위로하겠다고 하니, 자식으로서의 도리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27.

제 생각에 정말 잘 낸 문제입니다. 깔끔합니다. 수필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제 파악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필을 읽으면서 이 수필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파악했다면 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아예 〈보기〉에서 친절하게 이 수필의 주제를 알려주긴 합니다만...

| 보기 |

「나의 단장」의 작가는 수필을 '생활과 예술의 샛길'로 규정하고 생활인의 관점을 드러내며 일상의 체험을 서술하면서도, 수필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에 우회적으로 맞서는 '무저항의 저항'을 실천한다. 특히 인간의 행위나 사물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기성 사회의 권위주의와 그에 따른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근대 사회에 걸맞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주제)**한다.

① 글쓴이가 '젊은이들'이 '웅크리고 숨죽이고 눌려 있'다고 표현한 것에는, 기성 사회의 권위주의에 억눌린 젊은 세대의 처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군.

② 글쓴이가 '노인들'과 '젊은 축들'의 발화를 순차적으로 제시한 것에는, ~~일상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려는 작품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군.~~

③ 글쓴이가 '나의 단장'이 '버팀 막대기'가 아닌 '청춘의 목마'라고 하는 것에는, 사물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긍정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군.

④ 글쓴이가 '애급인'과 '투탕카멘의 단장'을 언급하는 것에는, 역사적 사례를 내세워 사회적 통념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군.

⑤ 글쓴이가 '단장이 낳은 이 자의식'을 '위축된 생활의 잔재'로 평가하며 '멋있고 으쓱하고 씩씩하게' 살자고 하는 것에는,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저항하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군.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세로로 스캔하세요. 수필을 제대로 읽어서 주제 파악이 정확하게 됐다면 답 선지 하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답은 2번이죠. 세대 간 갈등과 이 작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뭉개면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작품은 권위주의, 통념을 비판하는 것이지, 세대 갈 갈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좀 더 명확하게 따지려면 돌아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내가 '단장'을 짚고 다니는 것에 대해, 노인들과 젊은 축 모두 꼽을 주고 있으므로. 세대 간 갈등은 더더구나 아니지요.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이 파트에서는 연계, 지문 접근, 개념어, 이런 것들까지 싹 다 털어드릴 예정입니다. 독서라면, 실전에서 어느 정도 읽었는지와 사후적으로 이렇게 이해해봐라 정도로 나뉘게 될 겁니다. 바로 갑시다.

(가) 연계

고전시가 연계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어 풀이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휘발되고, 어렵게 나오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틀리기도 합니다. 현대어 풀이를 보되, 일상적 상황으로 납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상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수특에 있는 제3수와 제6수까지 여기서 공부합시다.

| 이중경, 「어부별곡」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부'입니다. 어부단가나 어부사시사에서도 '어부'는 '가어옹' 즉 작품 속에 설정된 관념적 존재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어부는 실제 어부인 '실어옹'과 작품 속에 설정된 존재인 '가어옹'이 있습니다. 진짜 가난해서 생계가 목적인 어부는 실어옹일 것이고, 소박한 삶을 보여 주고 싶은 것이라면 가어옹일 것입니다. 어부별곡에서도 '어부'는 관념적 존재인 가어옹입니다.

아이고 애달프구나 아이고 서럽구나
크고 넓은 천지에 내 혼자 살아 있어
여기에 있던 어채를 보니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제1수〉

- 일상적 상황으로 납득합니다. 사실 화자의 노모가 돌아가신 겁니다. 당연히 슬프죠. 혼자인 느낌도 들죠. 심지어 물고기와 채소를 넣어 만든 음식인 어채를 보니(평소 어머니가 맛있게 드셨나보죠.) 더 슬프죠.

처음에 못 생각하여 시서(詩書)를 일삼았도다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名利)를 바랐도다
물외(物外)에 풍월강산(風月江山)이 내 분인가 하노라 〈제2수〉

- 처음부터 자연에 은거할 생각을 못해서 시 쓰고 책 보는 것을 일삼았고, 명리를 바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다고 합니다. 즉 현재 자연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 겁니다.

이런들 뉘 옳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료
옳거나 외거나 나도 내 일 모르노라
세상이 시비를 마라 어부 무삼 그르리 〈제3수〉

- 이렇든 저렇든 누가 옳다고 할 수 있고 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시비를 따지지 말랍니다. 어부가 뭐가 잘못됐냐고요. 시비 = 옳고 그름입니다. 즉 어부로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죠.

경륜을 내 알더냐 제세(濟世)할 이 없을러냐
태평시세(太平時世)는 얼마나 멀었는고
필부의 위국충심(爲國忠心)을 내어 뵐 데 없어라 〈제4수〉

- 내가 경륜이 있냐. 나 말고 제세할(세상을 구할) 이가 없겠냐고 합니다. 태평성대는 얼마나 멀었냐며 세상을 걱정하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다보니 본인의 충심을 보일 수 없어서 탄식합니다. 자연에서 살고는 있지만,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의 고뇌도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 나이 많거나 말거나 머리도 세었거나 말거나
소년시(少年時) 마음은 이 세상에 아니 늙었노라
날마다 아희*를 하니 남이 웃는 줄을 모른다 〈제5수〉

- 영포티 감성이군요. 나이가 많든 적든, 머리가 세었든 말든, 내 마음은 여전히 젊습니다. 날마다 애들이 노는 것처럼 철없이 노는데, 이것 역시 남이 비웃든 말든 시비를 걸든 말든 자연을 즐기겠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창산은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산고수장하니 그 아니 좋을쏘냐
산수 간 일한인되어 허물 없이 사노라 〈제6수〉

- 창산은 높고 유수는 길고 = 산고수장 같은 뜻입니다. 산이 깊고 물이 길어서 좋다 합니다. 자연에서 한가롭게, 허물없이 살아서 좋다고 하네요.

(다) 지문 접근(수필 독해력)

(나)는 비연계 고전시가고, 〈보기〉를 통해서 접근해도 대강의 맥락을 잡을 수 있기에 지문 접근을 생략합니다. 수필을 어떻게 읽을 건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듯해서 수필의 맥락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맨땅에 헤딩하는 게 두려우면 〈보기〉를 읽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7번의 〈보기〉는 아예 주제를 알려주는 친절한 〈보기〉입니다. 실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인데, 〈보기〉가 친절하면 지문을 읽을 때, 이 주제를 확인하는 느낌으로 읽어주면 좋고, 〈보기〉가 불친절하면, 지문을 읽으면서 주제라도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할 겁니다. 수필은 뒤로 갈수록 눌러 읽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결국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필은 초반부에 납득이 잘 안되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납득이 안 되는 초반을 잘 버텨서 후반부를 잘 읽으면, 하고자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할테니, 일단 뒤로 갈수록 좀 눌러 읽는다! 이것만 일단 기억해주세요.

노인 앞에선 안경도 못 쓰고,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편히 앉지도 못하는 것이 청춘이라면 청춘의 보람이 무엇이며, 마음껏 기를 펴지 못하는 것이 무슨 청춘일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얼른 어른이 되고 일찌감치 늙으려고 의식적으로 꾀하였던 것이다. 다리를 쭉 뻗고 기를 펴고 지내 보려면 모름지기 존장(尊長)이 돼야 할지니 젊은이들은 웅크리고 숨죽이고 눌려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뻗고 펴고 자라는 생명력이 점점 구부러지고 움츠려지고 시들어졌다.

그래서 내가 나이 서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젊은 놈이 지팡이가 다 무슨 지팡이람."

하고 괘씸하다는 눈치로 보는 노인들이나,

"여보게 자네 나이에 스테키*가 다 무언가."

하고 항의하는 젊은 축들은 모두 평양 사람들이 이르는 '개화장(開化杖)'인 나의 단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의 단장은 구부러지고 엎드러지려는 인생을 떠받치는 버팀 막대기가 아니라 실로 약동하는 생명의 율동에 맞춰서 대지를 치고는 몸을 위로 솟구는 청춘의 목마다. 단장을 짚고 다니는 맛은 – 군도 한번 시험해 보라 – 땅 위를 걸어가지 않고 뛰며 간다는 감각이다.

- 실전에서 읽을 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건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나) 지문 두 번째 줄에 보면 지팡이가 나와요. (다)의 주요 제재는 아예 지팡이죠. 이걸로 엮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초반부를 읽을 때, 한 가지만 명확히 들어오면 됩니다. '사회적 통념'을 까는구나.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지팡이 짚는다고 뭐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도 지팡이 짚는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것들 역시 내가 '단장'을 짚는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며 까는 겁니다. 나의 '단장'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실전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수는 있으나, 아무튼 생명의 율동에 맞춰서 대지를 치고는 몸을 위로 솟구는 청춘의 목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나만의 어떤 이유로 '단장'을 짚고 다니는 건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길게 나의 단장을 변명해야 되느냐? 인간의 행동 중에 가장 부자연스러운 입으로 연기를 머금고 코로 다시 내보내는 짓을 하되 태연한 사람들이 왜, 쥐려고 마련된 손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을 시비하느냐 말이다. 단장이 낳은 이 자의식은 옴츠리고 뒤꽁무니 빼고 살던 위축된 생활의 잔재임에 틀림없다.

같은 값이면 멋있고 으쓱하고 씩씩하게 살아 보자. 값진 양복을 입지 않아도,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단장을 휘두르고 다니기만 하면 – 때로 휘파람도 불어야 하지만 – 청춘은 즐거울 것이다.

-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 짚는 걸 왜 이렇게 구구절절 내가 설명해야 하지? 이런 거죠. 담배를 피우는 것도 태연한 사람들이 왜 고작 내가 지팡이 하나 짚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는 겁니다. 이건 내 자유다! 뭐 이런 거죠. 수필은 뒤로 갈수록 잘 읽으면 됩니다. 결국 이 수필의 주제는 마지막 문단이 되겠네요. 이정도는 읽자는 겁니다. 이게 수필이 어려워지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더 와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사는 인생 = 멋진 인생 = 청춘을 즐기는 것(주제)

22.

이왕 한 김에 개념어 정리를 좀 합시다. 문학 개념어는 일상의 언어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몰랐던 것들은 좀 챙깁시다.

① (가)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 대비 : 의미 있는 차이가 부각되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대비는 무조건 티가 납니다. 티가 나지 않으면 대비가 없는 겁니다. 색채어는 색깔이어야 합니다.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나, 색채어는 엄밀하게, 색채 이미지는 느슨하게 따집니다. 역동적 이미지 = dynamic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②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나타내고 있다.

- 말을 건네는 방식은 청자의 반응이 없어도 화자가 말을 걸면 됩니다. 가끔 대화체와의 구분을 묻기도 하고, 독백적 어조와의 구분을 묻기도 하는데, 이걸 연결해서 보시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교집합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가 대화적 구성이 맞다면 말을 건네는 방식도 맞을 수밖에 없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면서 독백적 어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이가 죽었는데, 누이야 잘 지내? 이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만, 제3자가 보이게 이 사람 혼잣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오면 이 개념들과 엮어서 따지지 마시고, 그냥 진짜 말을 건네고 있는지만 따지시면 됩니다.

③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애상적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 애상 = 슬픔입니다. 단 폭풍 오열하면서 우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쓸쓸함에서 오는 슬픔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요.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웁니다. 이걸 보고 우리 승모 애상적이야~ 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

④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영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탄사가 있으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별 포인트가 안 되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체언+호격조사(백구야) / 감탄형 어미(-노라, -도다 / -는구나 등등) / 설의, 청유, 의지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영탄이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영탄이 바로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전에서 영탄을 따질 때, 이런 것들이 모두 영탄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인데, 영탄은 사실 형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으로 따지는 거예요. 영탄은 감정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요소들로 찾아놓고 감정이 고조되느냐, 최소한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나느냐로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4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낙화라는 시를 봅시다.

>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영탄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가'를 통해 형식적인 요소(어미)를 봤고, 다만 감정이 뚜렷한가를 보라고 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가'입니다. 이러면 영탄이 맞겠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기출 분석하면서 영탄이 헷갈리는 시들이 좀 있을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답을 고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정도면 영탄이겠다 하는 본인의 일관적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며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관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관조는 1) 대상 관찰 내지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2) 시의 분위기가 차분하고 이성적 3) 깨달음과 사색 동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1)+2)가 충족되면 보통 관조가 맞습니다. 보통 시 두 개가 모두 관조인 경우는 거의 없어서, 맞을 일이 별로 없는 선지이긴 합니다. 꿀팁 하나 드리면, 관조는 관조일 때보다 아닐 때가 많아서 아닐 때를 알아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관조는 시의 분위기가 차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관조가 확실히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영탄이 있으면 관조가 안 됩니다. 영탄은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22번 접근하실 때, 4번이 맞죠? 그럼 5번 선지는 무조건 안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승선

이상모택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